상위 1%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 '랜선 라이프'

1인 크리에이터 삶 24시간 관찰

이영자 · 김숙의 MC 만남도 관심

상위 1% 크리에이터들의 밀착 24시가 공개된다.

이영자, 김숙의 MC 만남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는 핫한 1인 크리에이터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카메라 뒷모습을 파헤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특히 '먹방의 대모' 이영자와 '먹방의 대가' 밴쯔의 만남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약 중인 김숙과 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대를 모은다.

5일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랜선 라이프' 제작발표회에서 이영자는 "워낙 호기심이 많이 섭외한 것 같다. 난 내시 역할이고, 진행은 송은이가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넋을 보고 보는 게 밴쯔다. 진짜 사람인가 싶다. 정말 먹방 신의 영역이다"고 감탄해 기대감을 높였다.

밴쯔는 이에 "방송 하면서 가장 궁금하게 제가 먹었던 건 누나가 드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때 선생님한테 과제를 내는 것처럼 떨린다"고 말했다.

김숙은 "현재 송은이씨와 연예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이분들이 너무 궁금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송은이씨와 하는 방송 제작 과정을 궁금해 하는데, 저도 이분들의 방송 제작 과정이 궁금했다. 구독자가 100만, 200만 하는 대단한 분들의 일상생활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요즘 아이들은 1인 미디어 방송이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 그들의 방송이나 일도 재밌지만, 생활은 더 재밌다"고 전했다.

이나라 PD는 이영자 김숙을 섭외한 배경에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1인 방송에선 베테랑이지만, TV 방송은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영자 김숙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강점에 대해 "1+1 같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이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콘텐츠도 지켜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밴쯔는 이날 이영자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벅찬 감회를 쏟아냈다. "어려서부터 이영자씨의 팬이었는데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다. 부모님도 이영자씨의 팬이셔서 같이 방송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먹방을 선보일 때마다 선생님한테 과제 확인을 받듯 떨리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영자는 "숙이가 자꾸 밴쯔와 먹방 대결로 붙으라 하는데 대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역 자체가 다르다. 밴쯔의 먹방은 신의 영역이다. 난 맛있게 먹는 거고 밴쯔는 많이 먹는 거다. 밴쯔는 야구, 난 축구다"고 강조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콘텐츠 제작 과정부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레임 밖 리얼한 삶이 공개된다.

리얼한 24시를 공개할 크리에이터 출연진으로는 게임을 이용한 코믹 스토리텔링으로 크리에이터계를 선두하는 '대도서관'과 여신 비주얼에 토크력을 겸비한 '윰댕'이 함께 출연, 부부 케미를 발산한다.

또 '2016 아프리카 BJ 대상'에 빛나는 먹방의 대가 '밴쯔', 각종 메이크업으로 사랑받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까지 내로라하는 상위 1% 유튜버 4인이 출연한다.

6일 첫방송 된다.

목격자 · 공작 · 인랑 · 신과함께, 여름 공략 韓영화

2013년 8월, 560만 관객을 사로잡았던 '숨바꼭질'을 이을 올 여름 최고의 스릴러 '목격자'가 8월 중순으로 개봉시기를 확정했다. 이로써 스릴러 '목격자', 액션 '인랑', 판타지 '신과 함께-인과 연', 첩보극 '공작'까지 각기 다른 장르로 여름시장을 공략할 한국영화 4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목격자'는 지난 5월,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스크리닝에서 현실적인 공간 설정과 대담한 연출 그리고 몰입감 넘치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판권, 리메이크 문의가 이어지는 등 해외에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특히, "현실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릴이 영화 '숨바꼭질'을 떠오르게 한다", "일상 속에 조여오는 스릴과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해외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으며 2013년 8월, 전국에 스릴러 신드롬을 일으켰던 '숨바꼭질'의 계보를 이을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목격자'는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제보율은 낮아지는 방관자 효과, 일명 제노비스 신드롬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집단 이기주의, 사이코패스 등 현실과 바로 맞닿은 메시지까지 담아내 기존 스릴러와의 차별점을 세웠다. 장르불문, 2018 영화계를 장악할 믿.보.배 이성민이 살인범과 눈이 마주친 목격자 '상훈' 역을 맡아 극강의 스릴을 선사할 열연을 펼친다. 여기에 충무로를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 김상호와 진경, 차세대 대세 배우 곽시양이 합세해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8월 8일 개봉하는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첩보극. 한국의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사회적 소재를 영화적 세계로 펼쳐내며 많은 관객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던 윤종빈 감독. 그는 1990년대 북으로 간 스파이 흑금성의 이야기를 통해 첩보 장르 고유의 재미를 주며, 남과 북의 다채로운 인물들을 통해 분단국가의 드라마틱한 이면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윤종빈 감독 특유의 치밀한 연출과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등 매 작품마다 탁월한 연기력과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들의 조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공작'은 올 여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밀도 높은 서스펜스를 선사할 것을 예고,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는 25일 개봉하는 김지운 감독의 '인랑'은 남북한이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반통일 테러단체가 등장한 혼돈의 2029년, 경찰조직 특기대와 정보 기관인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기관 간의 숨막히는 대결 속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인랑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인랑'은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한치 앞의 생사 또한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인물들의 모습들을 통해 새롭고 강렬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것이다.

'신과함께-죄와 벌'의 후속작으로, 여름 흥행 대전의 시작을 알릴 예정인 '신과함께-인과 연'은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천 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김용화 감독이 '신과함께-죄와 벌'에 이어 '신과함께-인과 연'의 연출을 맡아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8월 1일 개봉한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며느리들의 리얼 이야기 '공감'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가 2회 방송에서도 폭풍 공감을 받았다.

지난 4일 방송된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2회에서는 민지영, 박세미, 마리 세 며느리들의 리얼한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은 두 아들의 엄마가 된 박세미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세미는 출산 선물을 사주기로 한 시어머니와 함께 아기용품점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둘째 텐텐이 뿐만 아니라 첫째 지우 선물까지 골라주지만, 며느리 세미는 비싼 가격에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가에도 불구 시어머니는 손주를 아끼는 마음에 거침없이 아기용품을 결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집으로 돌아온 세미와 시어머니, 빨래를 개고 있는 틈을 타 지우가 미끄럼틀에서 부딪혀 다치게 된다. 놀란 지우는 울음을 터뜨리고 시어머니는 미끄럼틀을 때리며 "떼찌"라고 말한다. 이후 거듭 시어머니가 미끄럼틀을 때리며 혼내는 시늉을 보이자 세미는 "요즘은 '떼찌'라고 하면 안 된다. 미끄럼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 육아법을 두고 작은 갈등이 일어났다. 고전적인 육아법으로 아이를 키웠던 시어머니는 세미의 신세대 육아법이 다소 어색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요즘엔 '떼찌'라고 하면 안 되냐"는 이지혜의 질문에 세미는 "부모가 가르치는 제1의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우가 잠든 시각, 시어머니와 세미는 단 둘이서 시간을 보낸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터놓았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아들 타령을 하셨다. 재욱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예뻐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땐 예쁘다고 하면서 그래도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하시더라"라며 그동안 며느리로서 살아오면서 겪은 고충을 고백했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부터 며느리와 여성들에 대해 대물림되고 있는 고충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공감을 자아냈다.

공감대가 형성된 박세미 고부와 달리, 민지영은 친정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서운함을 느꼈다. 지영은 어버이날을 맞아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으나 아버지는 이를 거절했다.

당황한 지영이 "어버이날마다 같이 밥을 먹었지 않냐"라고 되묻자 아버지는 "그건 시집가기 전의 일이다. 시집가면 남편과 시부모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단호한 답변으로 지영을 당황하게 했다.

지영은 친정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서운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후 친정어머니와 만난 지영은 미리 사둔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 해준 옷이 필요했다며 좋아하는 친정 엄마의 모습은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지난 1회에서 레게머리, 화려한 손톱 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결혼 5년 차 며느리 마리의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2회에서는 자유분방하고 별난 것처럼 보였던 마리도 어쩔 수 없는 '며느리'였음을 실감케 하는 모습들이 그려졌다.

시부모님은 마리 부부에게 손주를 원하는 뜻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낳을 생각은 했냐?"는 질문을 했고, 남편 제이블랙은 "마리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다 안다. 우리도 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가질 생각도 하고는 있다"며 아내의 입장을 배려해 대답했다.

제이블랙은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마리가 춤을 그만두면 마리가 우울할 걸 아니까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난처했을 아내의 입장을 고려한 제이블랙의 모습은 많은 며느리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난생 처음 시어머니와 '오렌지 넣은 김치 담그기'에 도전한 마리의 장보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처음 김치 재료를 사보는 마리는 마트에서 시어머니께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오렌지와 갓을 찾지 못하자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리는 두 재료를 찾기 위해 다른 마트로 향했고, 어렵게 갓과 오렌지를 구해 시댁으로 향했다. 거침없어 보이던 마리 역시도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진 며느리임을 보여줬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음력 5월 23일)

▶쥐띠 항상 분주하게 살다 보니 피로가 누적한다. 건강에 유의하라. 특히 과음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운전은 삼가야 한다. ㄴ, ㅂ, ㅎ 성씨 사랑할 자와 힘 될 자를 빼앗길 수 있다. 주변 관리에 신경 쓰라. 4, 10월생 뱀, 소띠와 손잡고 일을 추진하면 좋다.

▶소띠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나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서서히 비추는 운이니 닭, 말, 토끼띠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때 더욱 탄탄대로를 달리겠다. 1, 5, 6월생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호랑이띠 새로운 진로가 열릴 운이니 해야 할 일만 성실히 하면서 내실을 기하라. 침체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진다. 2, 5, 8월생 자신을 뽐내려고 경거망동하다간 귀인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다. 조심하라. 애정은 약속을 지키라.

▶토끼띠 생각지도 않던 일로 고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귀인의 도움으로 쉽게 실마리를 찾는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 1, 6, 11월생 애정은 짝사랑하는 격이다. ㄱ, ㅅ, ㅁ 성씨 여행보다 취미를 살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

▶용띠 새로운 일을 하는데 고전한다고 또 바꾸려고 하지 말라. 3, 5, 9월생 초반에는 힘들어도 귀인 도움으로 서서히 풀리는 운이다. 한꺼번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성실히 노력하면 대성한다.

▶뱀띠 말과 행동이 다르니 상대가 떠난다. 주관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시기이니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라. ㄱ, ㅂ, ㅎ 성씨 욕심이 강해 진정한 애정을 잃는다.

▶말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매사 힘들다. 결심을 단단히 하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나를 지키고 키울 수 있다. ㄱ, ㄴ, ㅊ 성씨 뜬구름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법이다. 길이 아니면 빨리 돌아서라.

▶양띠 4, 8, 12월생 감정을 억제하고 조용함 속에서 실속을 찾으라. 급한 마음을 버리고 사색할 때 새로운 지혜가 큰 힘이 돼 이득을 얻는다. ㄱ, ㅇ, ㅂ 성씨 사업은 현상 유지에 힘쓰라. 토끼, 닭, 개띠가 힘이 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유혹을 조심하라.

▶원숭이띠 ㄷ, ㅊ, ㅎ 성씨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라. 2, 3, 11월생 주위 사람들과 추진하는 일은 급히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기다리며 추진할 때 대성하나 금전으로 고전하겠다. 북, 동쪽이 길하다.

▶닭띠 인생은 순리대로 따라가야만 가정도, 사업도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겠다.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길 때 더 많은 이득이 있다. 큰 욕심만 부리면 있는 재산을 줄이는 격임을 알라. 4, 5, 11월생 육체 피로가 큰 화를 부르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개띠 잘못된 일을 남의 탓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나를 돌아보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상대 또한 내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ㄱ, ㅅ, ㅁ 성씨 전진하는 자만 노력의 대가를 얻는다. 신용이 자산임을 알아야 상대에게 인정을 받는다.

▶돼지띠 이기심으로 행동하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난다. 떠난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며 주변을 정리하라. 그래야 금전과 명예를 얻는다. 안일한 생각은 역경을 부르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4, 5, 7월생 돼지, 닭, 원숭이띠의 충고를 귀담아듣고 실천해야 한다.